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무엇으로 도를 알 것인가

학승이 물었다. "학인은 특별한 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도 특별한 대답은 하지 말아주세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과짜근."

問 學人 不別問 請師 別答 師云 奇怪

절에 오면 다들 특별한 무엇을 찾는다. 그런데 와서 보면 특별한함 없다. 남들처럼 밥 먹고 잠자고 일하는 곳, 사람이 그저 살아가는 곳이 절이다. 이렇게 평범한 곳이지만 거기서 도(道)와 참 진리, 높은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선사의 말은 특별하지 않다. 그저 평범한 말들일 뿐이다. 다만 평범한 말에 대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평범한 말이 특별한 말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조주 스님의 '개가 불성이 없다'는 말이나, '사람 잡는 칼 따위는 쓰지 않는다', '나는 고봉의 정상에 올라가지 않는다', '뜰 앞의 잣나무' 등의 말은 모두 평범한 말이다. 그 의미를 해독하고 보면 더욱 평범하다는 것에 실감이 갈 것이다. 그런데 특별함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이 항상 이분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선과 악, 남과 여, 부자와 가난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등의 상대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본 (조주록)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양변을 떠나서 읽으면 (조주록)이나 기타 선사들의 선문답은 그저 아이들이 장남 삼아 떠돌아내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삼승교(三乘敎)를 떠나서 어떻게 사물을 교화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세계가 존재한 이래 해와 달이 바뀐 적이 없었어."

問 三乘敎外如何接人 師云 有此世界來 日月不曾換

석존이 중생의 근기를 3가지로 나눈 것이 삼승이다. 삼승 중에서 성문과 연각을 합하여 2승이라고도 부르고, 보살승만 따로 떼어서 일승(一乘)이라고도 한다. 일승(一乘)은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 평등주의이다. 누구든지 마음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다 부트라 칭한다. 보살 이상이 1승이다. 이승(二乘)은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다. 성문은 색·소리·냄새·맛·촉감·법(法)에 연연해하지 않는 경지이고, 성인 초입에 들어간 사람이다. 연각(緣覺)은 낮은 근기의 수행자로서 겨우 인과법을 듣고 깨달은 자이다. 부처님 말씀에 3승이 있지만 이것은 중생의 근기가 각기 달라 방편으로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붓다의 뜻은 오직 일승(一乘)을 전하려고 했을 뿐이라 했다. 조주 선사는 해와 달이 바뀐 적이 없듯이 선사들이 아무리 독창적인 가르침을 편다해도 결국 삼승을 떠나서 따로 가르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선불교가 중국에서 발달한 불교이나 선불교에도 부득이 초급과 고급자들의 가르침이 각기 다르다는 말이다. 애석하지만 선불교 안

에도 근기의 차별은 있다. 그대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학승이 물었다. "삼처(三處)로는 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식(識)을 벗어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식(識)이 곧 분 밖의 일이다."

問 三處不通如何離識 師云 識是分外

삼처는 육근(六根), 육진(六塵), 육식(六識)을 말한다. 육근은 눈·귀·코·혀·몸·뜻의 사람의 여섯 가지 기관을 말하고, 육진은 물질·소리·향기·냄새·맛·촉감·법인데 육근에 닿는 6가지 대상이다. 육식은 안계·이계·비계·설계·신계·의식계인데 육근에 육진이 닿자마자 향기가 난다. 맛있다 등을 판단하는 작용을 한다. 눈은 색깔을 보고 본 것에 의하여 식(識)이 빨간 색인지 파란 색인지 구분을 한다. 이 구별하는 의식을 식(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보거나 느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도를 통하지 못한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적 의식으로 도를 집착하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識)을 벗어나 도를 통할 수 있을까? 조주 선사는 역설적으로 식(識) 자체가 이미 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잘 생각해보라. 식으로는 도저히 도에 근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식이 없으면 무엇으로 도를 알 것인가.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나의 말과 행동의 어떤 것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 (생웃타 니카야)

참, 신기한 일이다. 너무나도 쉽게 큰 들리는데, 작은 미풍에도 하늘하늘 춤을 추는데 부러지지 않는다. 그 어디에,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이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 전형적인 외유내강(外柔內剛)이다. 물론 그가 겉으로 강인함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분명히 더 이상의 고뇌는 없다고,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최고의 높이까지 이르렀다고 선언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옳다, 나에게 는 결코 추후의 허물이 없다.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들의 몫이겠지"라고, 무류(無謬)를 주장하면 자신만만해 하지 않는 것이다. 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있어 하는 분들을 일컫어서 "카리스마가 넘친다"라고 말하는데 ---. 마치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나 되는 듯이 말이다. 카리스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타자(他者)와 대립하게 된다. 스스로의 신념과 강인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절대적 진리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만큼 가열찬 투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자칫 돌아오는 것은 탄압과 박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카리스마로 넘치는 지도자가 쉽사리 항복할 리는 없다. 고스란히, 온몸으로, 고난의 칼날 위에 선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얻어진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불굴의 의지에, 불퇴의 신념에 환호를 보내는 것이다.

로를 낫출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본래 면목(本來面目)이었던 것이다. 그 앞에 모여든 500명의 제자들이 제자로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그 역시, 저신란(親鸞, 1173-1262)스님처럼, "나는 단 한 사람의 제자도 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을까? 제자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었을 뿐이었는가? 제자들을 스스로 삼으셨던 것일까? 이제 더 이상 미혹은 없다. 고선 언하셨던 분이라면 "더 이상 나의 말과 행동에는 허물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셔도 될 듯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말과 행동에 어떤 것이라



그림 · 박구원

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 묻고 계신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우리의 그분은 결코 그런 일로 존경을 구하지 않으셨다. 많은 길벗들과 함께 모일 때면, 그저 한번 씩 물어보셨을 뿐, 그 스승을 한 없이 낮추어서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대들에게 청하건대, 나의 말과 행동의 어떤 것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 (일야 편역, <한 권으로 읽는 배알리 경전>, 민족사, 308쪽). 맹자 지도자라는 분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나니 ---.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나니 ---. 어쩌서일까? "오직 어진 이만이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삼킬 수 있다"고 했던, 맹자의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맹자처럼 정치·교육적 고려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분에게는 구도의 진지함이 있을 뿐이었다. 다만 그렇게 스승

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 묻고 계신다. 깨친 자에게는 더 이상의 수행은 필요 없다는 신화(神話)가 무색할 만큼, 그분은 깨침 이후에도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서 허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영원한 님의 화신(化身)이었다.

우리 무슨 복이 그리 많은가. 다행히,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 그런 분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다.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부처님이다. 고타마 붓다!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부처님이 좋다.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부처님을, 나는 한없이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 학생들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의 어떤 것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나 역시 한 없이 낮아지고 싶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㉓

여섯 감각기관 육근과 그 인식대상 육경

삼과 - ②십이처(十二處)

십이처(十二處)의 처(處)는 입(入) 또는 입처(入處)라고도 한다. 이는 '처'의 산스크리트어 아야타나(āyatana)에 '들어오다'라는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야타나는 어원학적으로 a-yat-[들어오는] ana[곳, 것]로 분석되며 '들어오는 장소', '들어오는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들어오는 장소'란 안근(眼根)·이근(耳根)·비근(鼻根)·설근(舌根)·신근(身根)·의근(意根)의 육근(六根)을 말한다. 여기서 근(根)은 산스크리트어 인드리아(indriya)를 번역한 말로 '능력'을 의미한다. 즉 안근(眼根)이라는 말은 눈이 가지고 있는 시각 능력을 나타내며, 현대 의학에서 시각기관의 시신경과 같다. 안근과 마찬가지로 이근은 청각능력, 비근은 후각능력, 설근은 미각능력, 의근은 지각(知覺)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이 육근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시력을 통해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물이 인간의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장소, 즉 통로가 바로 눈이고, 이를 가리킬 때는 안처(眼處)라고 부른다. 안근과 안처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시각능력 자체를 가리킬 때는 안근으로, 안근을 통해 사물이 눈에 들어오는 작용을 가리킬 때는 안처라고 말한다. 나머지 이근·

비근·설근·신근·의근도 이와 같은 작용을 하며 이를 합쳐 육내처(六內處)라고 부른다. 그 다음은 육내처의 대상으로 색경(色境)·성경(聲境)·향경(香境)·미경(味境)·촉경(觸境)·법경(法境)의 육경(六境)이 있다. 즉 육근 하나하나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눈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소리를 듣는 능력은 없다. 눈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귀가 사물을 구분할 수 없듯이 육근은 각각의 기능에 맞게 대응하는 각각의 대상을 지니고 있다. 경(境)은 산스크리트어 비사야(viśaya)의 번역어로 '영역, 범위' 등을 의미하며, 육경의 첫 번째인 색경은 '물질의 범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육경은 '들어오는 것'에 해당하며 육외처(六外處)라고 부른다. 이렇게 물질은 눈을 통해 들어오고, 소리는 귀를 통해 들어오듯이 육근과 육경을 짝지어 나열하면, 안근과 색경, 이근과 성경, 비근과 향경, 설근과 미경, 신근과 촉경, 의근과 법경이 각각 대응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모두 합쳐 '십이처'라고 한다. 이 십이처에 대해서 각각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처(眼處)는 시각 기관이다. (2) 이처(耳處)는 청각 기관이다. (3) 비처(鼻處)는 후각 기관이다. (4) 설처(舌處)는 미각 기관이다. (5) 신처(身處)는 몸으로 추위나 더위 또는 통증 등을 느끼는 촉각 능력이며 촉각 기관이다. (6) 의처(意處)는 앞에 설명한 다섯 항목이 감각기관 혹은 감각능력인 것과 달리 지각기관이며 지각능력을 말한다. 의근은 지각작용을 관장하는 마음[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7) 색처(色處)는 시각의 대상이 되는 형태와 색깔을 지닌 사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물질 전체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로 한정된다. (8) 성경(聲處)는 청각의 대상이 되는 소리이다. (9) 향처(香處)는 후각의 대상이 되는 냄새나 향기이다. (10) 미처(味處)는 미각의 대상이 되는 맛이다. (11) 촉처(觸處)는 피부에 닿아 어떤 느낌을 일으키는 촉각의 대상이다.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 요소를 지(地)·수(水)·화(火)·풍(風)의 4대 요소라고 설하고 있는데, 이 4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촉처가 된다. (12) 법처(法處)는 의근,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 가능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존재와 비존재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처럼 십이처는 인간의 감각과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는 대상을 열 두 항목으로 나눠 세계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日 陽곡대 불교학석사·前 본지기자

특강 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무료 공개체험
신지식 공유를 위하여
수시 공개합니다
전화요망

-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 ❖ 연락처 : 010-3463-7806
-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술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하계 철야정진법회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원 서울선원에서는 제77회 하계 철야정진 법회를 실시합니다.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습니다. 재가자는 생업에 종사하고 혈연을 돌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 공부해야 합니다. 철야정진 기간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거사공부의 공부방편입니다. 특히 이번 정진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을 교재로 하며, 아울러 일심행 서울선원장의 법문과 함께 학인들과의 개별 면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2년 7월 27일 (금) 오후 8시부터 2012년 8월 1일 (수) 오후 10시까지
- 내 용 : 참선, 백봉선생님 설법, 선원장 법문, 면담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방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3) 선릉역 7번 출구나와 200미터 커먼그라운드 좌회전 오른쪽 두번째 빌딩 2층
- 회 비 : 10만원, 참석기간에 따라 자유로이 납부가능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02)3452-3033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합장